

일·생활 균형, 성평등정책 우선 과제로 추진 필요 전환 시대의 양성평등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

김원정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)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차기정부의 출범을 앞두고, 전국 만 18세-69세 성인 남녀 5,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성평등 과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살펴보고, 시사점을 도출하였음.

- 본 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중장기 사회 변화의 방향, 주요 분야별 성평등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, 성별 · 세대 · 계층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< 조사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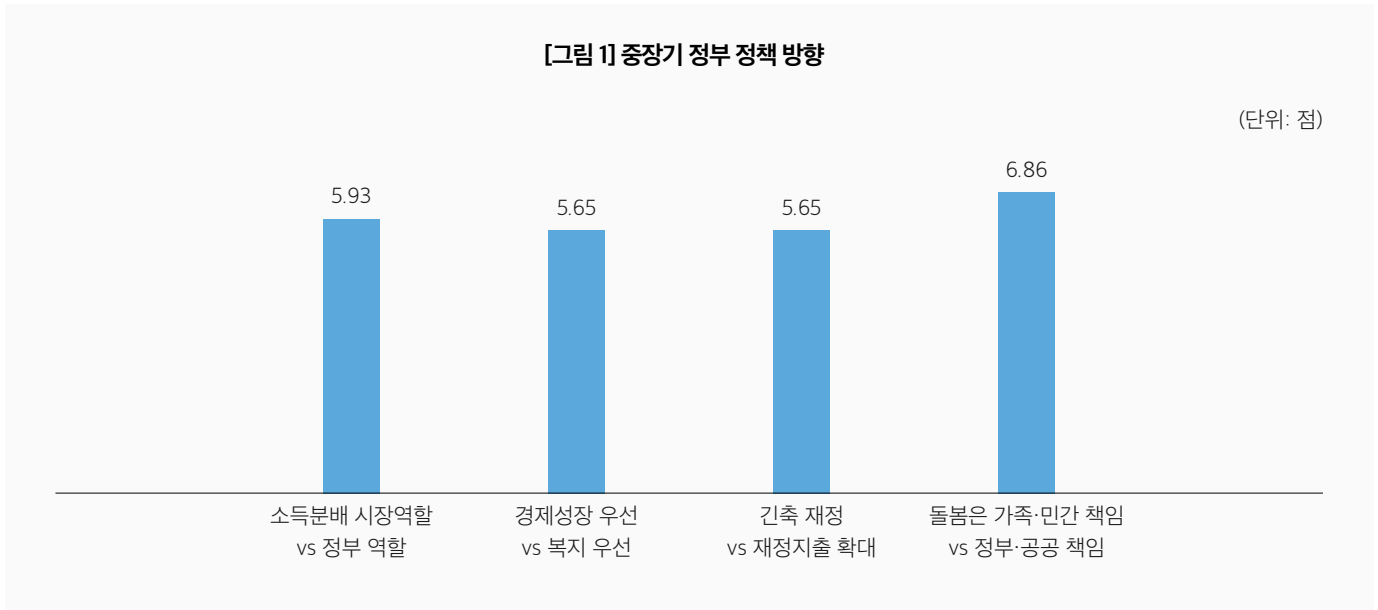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대상	전국 만18-69세 성인 남녀 5,000명
방식	온라인 패널 기반 웹조사
표본	지역별*성별*연령대별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추출
조사기간	2022년 1월 5일 ~ 1월 20일
조사내용	중장기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, 성평등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,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

1) 본 호는 「제3차 전환시대의 양성평등정책 연속포럼」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.

중장기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

◎ 소득 재분배와 돌봄 책임, 시장보다 정부 역할 강화 필요

- 소득 재분배에서 시장보다 정부 역할 강화, 요양보호·양육 등 돌봄은 가족·민간보다 정부·공공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, 경제성장보다 복지 우선,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는 응답도 반대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([그림 1]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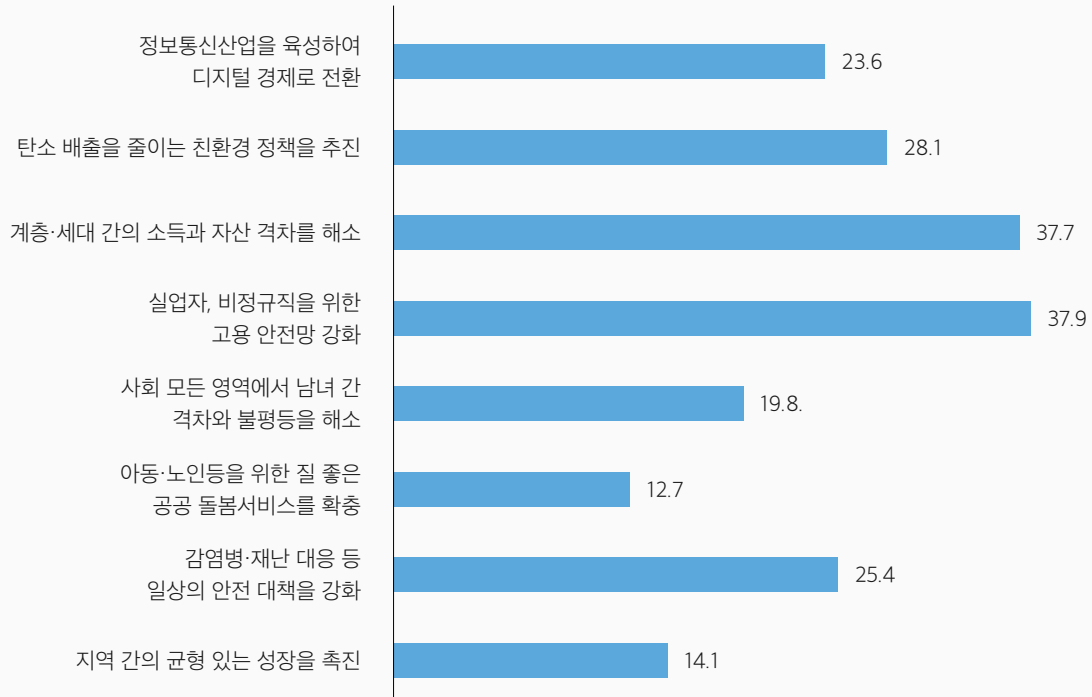
주: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각각 1과 10으로 두고 1~10 사이의 값을 선택하도록 한 문항으로, 10점에 가까울수록 각각 정부 역할, 복지 우선, 재정지출 확대, 정부·공공 책임 응답 비중이 높음.

◎ 계층·세대 간 격차 해소, 사회안전망 강화 요청

-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용안전망 강화(37.9%)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계층·세대 간 격차 해소(37.7%), 친환경 정책 추진(28.1%) 순으로 나타남. 감염병 재난 대응 등 일상의 안전 대책 강화(25.4%), 디지털 경제 전환(23.6%), 성별 격차 및 불평등 해소(19.8%) 역시 적지 않은 응답자가 지지하였음([그림 2]).

[그림 2] 우리사회 바람직한 변화 방향: 1+2순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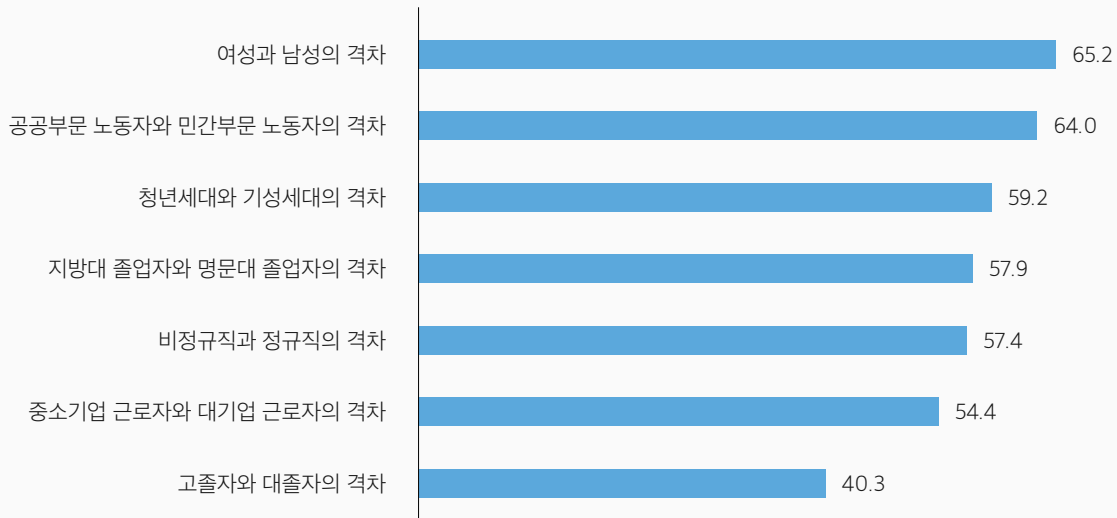


◎ 남녀 간 임금·소득 격차, 다양한 집단 간 격차 중 가장 부담

- 현재 우리사회에서 임금·소득 격차가 가장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여성-남성으로 65.2%가 부담하다고 응답함. 다음으로 공공부문-민간부문(64.0%), 청년세대-기성세대(59.2%), 지방대-명문대 졸업자(57.9%), 정규직-비정규직(57.4%), 중소기업-대기업 노동자(54.4%), 고졸자-대졸자(40.3%) 순임([그림 3]).

[그림 3] 우리사회 다양한 집단 간 임금·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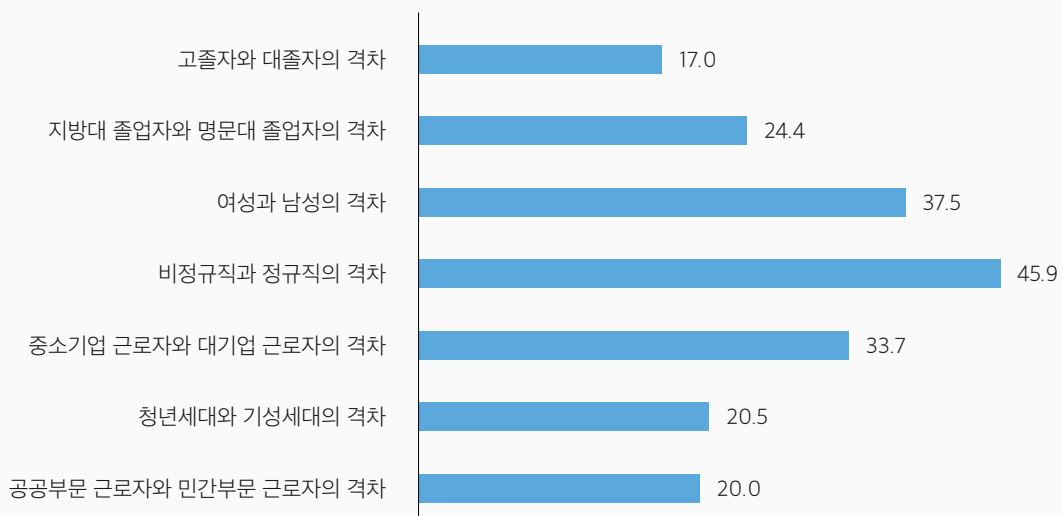
주: 매우 부당하다 ~ 매우 정당하다 4점 척도 문항에서 매우 부당하다+약간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중임.

◎ 고용형태·성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 우선 필요

- 앞서 본 임금·소득 격차 중 정부 정책을 통해 가장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정규직-비정규직 간 격차이며(45.9%), 다음으로 여성-남성(37.5%), 중소기업-대기업(33.7%) 순임([그림 4]).

[그림 4] 정부 정책을 통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: 1+2순위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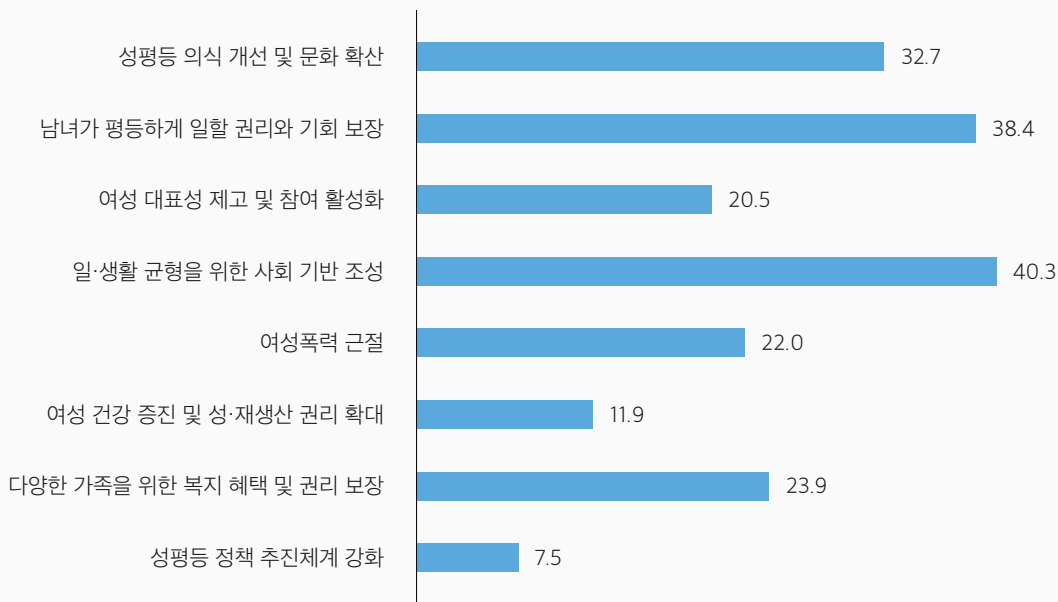
성평등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

◎ 일·생활 균형 분야, 지난 5년 간 성평등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

- 응답자들은 지난 5년 간 추진된 성평등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영역으로,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(40.3%)을 꼽았고,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(38.4%),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(32.7%)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([그림 5]).

[그림 5] 현 정부 성평등정책 성과 영역: 1+2순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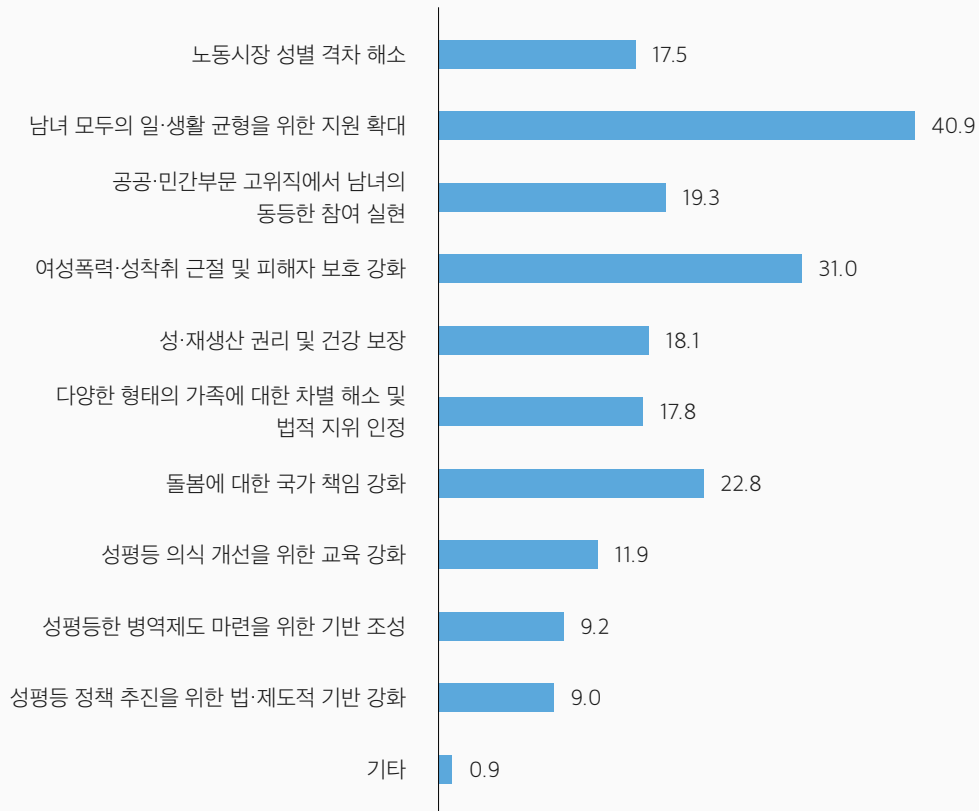


◎ 차기 정부 성평등정책 우선 과제는 남녀 모두의 일·생활 균형 지원

-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정책 과제 역시 일·생활 균형(남녀 모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 40.9%)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, 여성폭력·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(31%),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(22.8%)가 다음 순으로 나타남([그림 6]).

[그림 6] 차기 정부 성평등정책 우선 과제: 1+2순위

(단위: %)



마치며

-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방향에 대해, 성장보다 복지·분배·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, 계층·세대 및 성별·고용형태별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.
- 국민 5명 중 2명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정책 과제로 '남녀 모두의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'를 선택했는데, 이는 코로나19 시기 남녀 모두가 일·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체감하고, 실제 재택근무 등 일·생활 균형제도 활용 경험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. 따라서 차기 정부 성평등정책 추진 시 중점 과제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